

지열에너지 활용 체계화 시도

한국지열에너지학회 창립 ... 기술개발 및 표준화·인증제도 확립

지열에너지와 관련된 학술연구 활동 및 표준화 업무, 전문가 정보교류 등 공식적인 창구역할을 할 (가칭)한국지열에너지학회의 창립총회가 12월17일 대치동 현대주택문화관에서 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국내에서는 지열에너지 시장확대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관련기술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며, 표준화와 인증제도가 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반면, 에너지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에 대한 연구 및 기술 개발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으며 관련협회와 학회가 이미 설립돼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현존하는 냉난방 기술 중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이며 비용효과가 높은 공기조화 시스템의 예로 지열원 시스템을 들고 있다.

창립총회에서 초대회장으로 선출이 예정된 서울산업대 정광섭 교수는 “최근 산업자원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신축건축물의 대체에너지 이용 의무화 제도와 관련해 재생에너지, 특히 지열에너지의 이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어서 (가칭)한국지열에너지학회가 학계 및 업계, 연구소, 관계기관의 상호협력과 정보교류의 장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김영일 박사는 “학회가 추구하는 목적은 지열에너지의 유효이용 및 관련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술연구, 기술개발과 정보교환 등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히고 학술활동, 기술개발, 표준화 작업, 보급 활성화 방안, 정부정책 지원, 홍보, 출판 등을 적극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